

시편107:1-9 감사에 대하여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07편은 그 앞의 105, 106편과 더불어 서로 일치하는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시편을 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에서 포로생활을 하는 중에 다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오는 긴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때에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1.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런데 이 시편은 모든 감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없었던들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두 번 우리 인생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허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다”(합 3:17-18)

2.하나님의 속량하심에 감하여야 합니다. (2)

시109:31-31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뻐하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감사할 이유는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용의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 그렇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백 수천 가지 감사를 드려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3.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7)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인생교본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열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도 한 마디로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붙어 닦힌 재앙을 보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에게 붙어 닦힌 재앙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처했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